韓國生藥報

本紙는新聞倫理綱領및實踐要綱을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朴炳旭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 3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 1051
전화(967) 8 1 3 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最大의 봉사
1,最大의 협동
1,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5－5895
967－9807
967－8133 사무실

誠實한 栽培·收穫管理指導로서 委販事業實績을 올리자

各級分事務所長에게 當付

積極的인 系統出荷 協會運營 活性化

協會의 基本任務는 再言의 餘地없이 生藥生産會員들의 栽培·수확에 대한 效率的인 管理指導로서 수확을 올려주고 其수확품을 委託販賣하도록 系統出荷를 유도시켜, 生産會員과 協會相互間 所得을 연계 함으로서 福祉社會建設에 寄與하자는데 있다.

이 任務를 基本으로 하여 모―든 分所長들은 서약을 하면서 入會를 하고 其地域 生藥分野 指導媒體로서의 懸板을 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原則은 各自가 經營上의 所得을 올려야만 하는 事業性 때문에 잘 適用되어 지지 않고 있다.

말로서는 늘 희생적으로 奉仕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實質的으로는 事務室의 維持나 生活餘件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于先이 되고 있다는 것을 生覺할때 철두철미 奉仕가 잘안된다는 것은 理解할만 하다. 더욱 協會산하 分所長들이 直·間接으로 연관을 갖고 있는 生産會員들이 大部分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農家들이기 때문에 卽興的인 所得對案이 없는한 說得力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서 더욱 任務遂行은 어렵다고 生覺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제실성은 當初 감안되어 受任된 事項임으로 이를 핑계로 하여 基本任務를 소홀히 할수는 없는 것이다.

70년도末부터 80년도初까지만 해도 傘下 分事務所中 30%∼40%程度는 그런데도 系統出荷의 面目을 세워 주었고, 月間約 100만원∼120만원 程度의 手數料收入을 연계 하였으나 昨年度부터 系統出荷 또는 委託販賣알선量이 急激히 감소되어 오늘날 겨우 10%程度만이 명맥을 維持하고 있는 狀態로서 實로 共販場 運營에 進退兩難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한다.

이와같은 現實은 周邊의 經濟餘件 탓도 있다고 보겠지만 地方에서 來訪한 會員들의 여론을 집약해 보면 大體的으로 地域分所長들의 活動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于先 自體生活安定에 급급한 나머지 協會로서의 機能발휘에는 많은 회의감을 갖게 하므로 中央에 대한 협조와 支援자세는 더욱 바랄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傘下分所長들은 數年을 계속한 生藥業界의 不況을 극복해 왔고 協會組織과 더부러 15年을 營爲해온 경륜과 미련을 갖고 있음으로 쉽사리 자승자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生覺하는 것이다.

이제 國家經濟展望도 호황상태에 접어 들었다는 社會全般的인 與論도 있고 하니… 一翼에 不過하나 긍지와 인내심을 갖고 自體安定에 힘 쓰면서 協會分事務所로서의 任務遂行에 主眼點을 돌려 나아가야 할 것이다.

人間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 가야만 한다는 말을 깊이 새기면서 이時機를 다―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 爲하여 地方事情이 어렵더라도 全郡所長들이 한달에 한짝씩 의 씀만한 物件을 系統出荷해야 하겠다는 협조자세로 支援해 주실것을 再三 當付드리면서… (編輯部)

農村工場건설 확대

農路·用水개발 중점지원

정부는 농가의 農外소득 증대를 위해 農工지구를 조성, 농촌에 공장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품목위주의 생산지원방식에서 農路개설 用水개발등을 포함한 지역단위종합개발방식으로 농촌지원체제를 전환할 방침이다.

朴鍾洨농수산부장관은 16일 시도농정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法시행을 계기로 농공지구를 많이 조성, 농수산물가공공장및 농촌협공장건설을 늘리고 농어촌부업단지를 확대조성하여 농외소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농가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도록 복합영농시범사업대상품목은 수입대체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 지역특성에 맞게 선정하고 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에 중점을 두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가의 농외소득은 그동안의 농어촌부업단지조성 지방공단조성 새마을공장지정등 정부의 지원시책에도 불구, 공업개발의 도시지역편중, 대기업의 계열화미흡, 가내수공업의 저조등으로 작년의 경우 전체소득의 35%에 불과, 日本80% 臺灣74%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農水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음식을 골고루 먹자」

옛날 사람들은 식생활을 오로지 생명유지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의 식생활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좀 더 밝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부유한 나라를 이룩하는일과 깊은 관계를 맺고있다

서양사람들은 예로부터 빵과 고기류를 주식으로해 왔으며 육류, 생선류, 우유 버터, 치이즈, 아이스크림등 그 원료가 주로 동물성 식품으로 된 것을 많이 먹고 있다. 빵이나 야채, 감자류등 식물성 식품도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 조리 방법에 있어 우리나라처럼 찌개나 국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영양소를 갖춘 술을 끓여먹으며 다양한 식품을 섞어서 가공한 통조림도 많이 먹는다

영양소는 그 종류에 따라 체내에서의 기능이 각기다르므로 하나 이상의 영양소가 결핍되면 체내의 대사과정이 균형을 잃게되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좋은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식품, 칼슘식품, 무기질 및 비타민식품, 당질식품, 지방식품등 다섯가지 기초식품군의 식품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특히 단백질식품과 칼슘식품이 모자라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서 모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식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해야 할 것은 식단짜기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주부들이 식사를 미리 계획하지 않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식생활은 식품사용이 중복되기 쉽고 영양섭취가 불균형해지며 식품을 너무 적게 또는 많이 준비하여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매끼니마다 영양이 깊은 식품을 고르고 일일이 영양가를 계산하려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식단을 간편하게 만들게 5가지 기초식품군을 만들어 사용하면 좋다.

각군마다 신체내에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군의 식품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식품군의 일을 대신해 줄수 없으므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같은 식품군 내에서 식품의 종류를 골고루 또한 계절과 경제상태에 맞게 식품을 택할 수 있어 가족의 건강을 손쉽게 지킬수 있음을 말해주는 만큼 헛되이 버리거나 지나친 소비가 없도록 균형된 식단을 마련하여 균형식을 하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야 겠다.

◇다섯가지 기초식품군

군별	식품	식품명	몸속에서하는일	유의사항
단백질식품	고기, 생선알,콩류	돼지고기,생선,토끼고기,닭고기,계란,두부,조개,콩,두유,된장	몸의 피와 살을만든다.	처음부터 강한 열에 익히지 않는다.
칼슘식품	우유, 뼈채 먹는 잔생선	우유,분유,요쿠르트,사골뼈,멸치,미꾸라지,새우,뱅어포,잔생선	뼈와 이를튼튼하게 해준다.	우유는 실온에 두지말고 차게 보관할것이며,멸치는 뼈채먹도록 한다.
무기질및 비타민 식품	과일, 채소	배추,무우,당근,파,미역,김,상치,오이,호박,콩나물,포도,딸기,고추,사과,복숭아,감	병에 잘 걸리지않는다. 피부를곱게 해준다.	물에 오래 씻지말고 담가두지 말것이며,고온에서 단시간내에 조리하고 기름을 넣어서 조리한다.
당질식품	곡류, 감자류	쌀,보리,옥수수,밀,감자,고구마,빵,국수,설탕밀가루,라면,과자류	몸의 온도를 조절하고 힘을 낸다.	물에 오래 담가두지말고 지나치게 세게 닦지 않는다.
유지식품	유지류	참기름,식용유,잣,깨,마가린,호두	추위를 이겨내고힘을 낸다.	보관시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시원하고 어두운 곳에보관한다.

人事發令

〈任〉
▲全北道 부안군 事務所長＝申龍燮
▲全南道 승주군 事務所長＝裵英
84년5월7일부 承認。

〈免〉
▲京畿道 水原市 事務所長＝金石崇
▲江原道 양구군 事務所長＝金厚永
▲慶北道 大邱市 事務所長＝崔泰榮
▲慶北道 울진군 事務所長＝南光祐
▲慶南道 충무시 事務所長＝韓聖富
▲全北道 완주군 事務所長＝鄭一錫
▲全南道 무안군 事務所長＝朴圭錫
▲全南道 나주군 事務所長＝文濟成 (以上 8名)
84년5월10일부 解任。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慶尙南道 支部

道 支部長 金章憲
道 副支部長(慶南西部地域 共販場長겸직) 安京植
함양군 事務所長 金昌漢
거창군 〃 黃朝淵
김해시 〃 河正燮
하동군 〃 李仁培
고성군 〃 金正滿
진주시 〃 河萬義
울산시 〃 金正憲
양산군 〃 (支部長겸직) 金章憲
거제군 〃 全才鐸
울주군 〃 韓悟愚
마산시 〃 丁善昌
창원시 〃 金弘
밀양군 〃 李鍾守
산청군 〃 朴元來
통영군 〃 李英甲

1984年 5月 1日